

오무라즈시

오무라 가문을 상징하는 스시는 오무라 가문의 번주가 수년간의 추방 생활 끝에 승리하여 오무라번으로 귀환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무라즈시는 500 년의 역사를 가진 오무라시의 향토 요리로 15 세기부터 시작된 ‘누름초밥’의 일종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1480 년에 영주 오무라 스미코레(생몰년 미상)가 전투에서 오무라번의 영지를 탈환한 후 귀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접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스미코레는 이보다 7 년 전에 시마바라 반도와 현재의 사가현의 일부를 지배하던 아리마 가문에 패했습니다. 오무라번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번주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었으나 번주가 너무 빨리 귀환하여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귀환한 병사들에게 대접할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현지인들은 깊이가 얇은 나무 상자를 사용해 상자 안에 밥을 깔고 재료를 층층이 쌓은 것을 올려 이를 대접했습니다. 이처럼 오무라즈시는 원래 ‘승전을 축하하는 스시’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축하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이며, 꽃놀이와 피크닉에도 등장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무라즈시는 보통 달콤한 맛간장으로 간을 한 후 잘게 썬 표고버섯, 당근, 우엉, 연근 등의 재료를 두 겹으로 된 밥 사이에 끼워 넣은 요리입니다. 오무라즈시 위에는 분홍색과 녹색의 ‘가마보코’(어묵의 일종)를 얇게 썬 것과 달걀지단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무라즈시는 오무라 공원 안에 있는 요정 우메가에소(梅ヶ枝荘)를 비롯해 오무라와 나가사키현 곳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